

순 방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정보센터

(무역자료실을 중심으로)

—처음에—

중앙청을 비스듬히 건너다 보는 중학동 한국일보사의 고층 빌딩 8층 100여평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정보센터 무역자료실은 한국에서 가장 선진된 걸음을 걸고 있는 특수도서관의 하나이며 무역도서관 또는 상업도서관(Commercial or Trade Library)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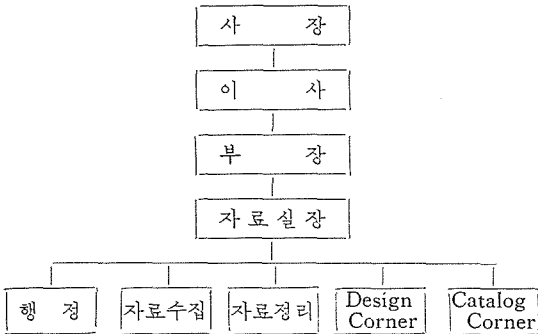
급증하는 수출 신장에 부응하여 무역에 관련된 제 분야의 자료정비와 해외시장의 정세 변동을 신속, 정확히 수집, 분석, 정비, 가공하여 현재의 분산관리에서 집중관리로 전환시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수출업무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체의 수출 증대를 위한 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출정보센터의 무역자료실은 이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아서는 수출정보센터 자체를 하나의 전문도서관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자료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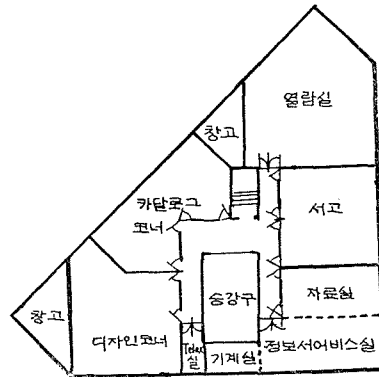
종래 KOTRA 무역자료실로 존속해 오던 것이 1970년 2월 수출정보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대폭 기구가 확장되어 수출정보의 첨병으로서 명실공히 무역자료실로서의 조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본 센터의 조직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자료정리 Part에는 6명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librarian을 배치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정리,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100여명의 실내배치는 34석의 좌석을 갖고 있는 열람실, 서고, 자료실, Catalog

Corner, Design Corner등으로 되어 있다.



—운 영—

본 무역자료실의 업무, 운영면을 보면 자료 수집 정리, 열람실 운영, 해외상품 Catalog 및 Corner의 운영, 해외 유사경쟁상품 수집, 전시 및 활용, 각종 Seminar지원으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자료실과 상관기구로서 정보서비스실은 정보자료의 조사, 발췌, 무역상담, 자료복사, 무역서신 안내, 해외시장 개척안내 등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Reference Service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며, 이밖에도 출판실, 선적상담실 등이 자료실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있다.

—자 료—

본 자료실의 자료는 타 도서관과는 특이한 것을 먼저 말할 수 있겠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단행본이 9,000여권, 해외정기간행물 1,000여종으로 다시 세분해 보면 Directory 360여종(71개국) 신용조사자료(일본, 미국, 캐나다, 서독, 스위스, 영국,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네델란드 등), 무역·경제·통계자료 343종(88개국) 관세율표 60여종(135개국) 경제, 산업, 무역관계 자료 6,000여권(80개국) 일반 연감 및 산업별 연감 450여종(40개국) 해외 정간물 1,000여종(47개국) 해외 신문, 통신 35종(18개국) 유사경쟁상품 900여점, Design포장상품 100여종, 상품 Catalog 4,500여종, 적물 및 Sample 북 4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자료실은 1970년도부터 수출정보센터로 발족, 기

구가 확대됨에 따라 획기적인 예산지원으로 현소장자료의 12분류 전반에 걸쳐 자료수집 계획이 훨씬 방대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금년안에 단행본 3,600권, Directory 500종, 통계자료 330종, 상품전문잡지 300종을 추가 수집할 계획이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국내에는 무역업자, 제조업자, 상공부, 외무부, 중앙관공서, KOTRA본부, 지방행정관서, 은행, 경제단체,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출판사, 도서관, 서적상, 광고에이전트, 해운회사, 주한 외국공관, 업계 단체 및 기타 연구조사기관을 통하여 수집하고 국외자료는 KOTRA의 조직망을 통하여 재외 공관, 각 은행 해외지점, 해외파견 조사단, 신문·통신사, 상사해의지점, 신용조사기관, 상사, 제조업자의 일시적 출장자, 외국 경제단체, 업계단체 외국시장조사기관, 광고 에이전트, 방송회사, 출판사, 해운회사, 수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다.

본 자료실의 자료의 분류 방식은 JETRO(일본 무역진흥공사)의 분류 System을 모방해서 상공·무역도서관용의 독특한 분류표를 사용하며 이에 준해서 자료를 정리 배가하고 있다. 이 JETRO분류표는 십진분류법만을 대해오던 도서관인에게는 처음 보는 분류표로서 이를 소개하여 보면 전문 12조의 분류규정과 9표의 분류표로 구성되는데 자료를 우선 10개의 군으로 대별하고 각군의 자료적 특성에 따라 군별로 각 분류표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방법에 따라 병용하여 입체적인 구성을 꾀하였다.

여기에 참고로 그 분류표를 보면

<주군표(主群表)>

- ① 일반단행도서류 B군
- ② 카타로그도서류 C군
- ③ Directory도서류 D군
- ④ 참고도서류 R군
- ⑤ 통계자료 S군
- ⑥ 잡지류 M군
- ⑦ 신문류 N군
- ⑧ 판세울료 T군
- ⑨ 팜프렛·리프렛류 P군
- ⑩ KOTRA간행물 K군

<분류표>

주군표에 소속되는 개개의 자료는 다음 분류표를 적용하여 세분, 배가되며 적용방법은 분류규정에 따르며 9개의 분류표로 응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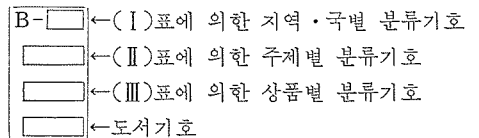
- ① 분류표(I).....지역, 국별 분류기호표
- ② 분류표(II).....주제별 분류기호표
- ③ 분류표(III).....상품별 분류기호표
- ④ Directory용, 종류별 분류기호표 [D]표

- ⑤ 통계용 종류별 분류기호표 [S]표
- ⑥ 잡지용 종류별 분류기호표 [M]표
- ⑦ 신문용 종류별 분류기호표 [N]표
- ⑧ KOTRA간행물용 분류기호표 [K]표
- ⑨ 참고도서용 분류기호표 [R]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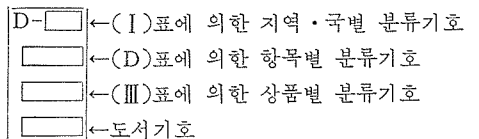
한편 각종 Catalog류의 정리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부의 무역(수출입)통계 자료와 U.N. 발행의 통계자료에 사용하고 있는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의 상품명 인덱스에 의해 분류 정리하여 Catalog Corner에 3개월씩 전시하게 된다.

자료 정리에 있어 또 한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Label의 기재요령이다.

예 1) B군 자료 (일반 단행본)



예 2) D군 자료 (Directory 도서류)



— 봉 사 —

수출정보센터는 각종 수집수단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정리 축적하여 상공·무역계통의 모든 이용자에게 서어비스 해 주고 있다. 또한 복사서어비스는 물론 Catalog에 대하여는 대여도 하며 무역상담, 전화질의응답, 선적안내, 선적상담 등 수출을 하기 위해 어떠한 Information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도 있지만 Design Corner나 Catalog Corner등의 독특한 봉사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상품 잡지 및 다양한 자료의 구성은 매우 팔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미주에서 주축개념을 이루어 온 Library Science는 불·독의 Bibliothek와의 타협을 강요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Library & Information Sciences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재래의 통념을 넘어 Librarian은 조사원(researcher)으로서의 새로운 지위 구축을 임무로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여기 상업·무역도서관으로 발족한 수출정보센터 무역자료실은 기정의 정보(information)와 미확정정보(intelligence)를 이용가능한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Librarian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인식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 본래 특유의 전문적인 업무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도서관계에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金相濶)